

안옥선의 ‘불교와 페미니즘’ 연구 리뷰

조승미 (서강대 종교연구소)

1. 안옥선의 ‘불교와 페미니즘’ 연구업적

국내 불교여성 연구가 시작된 지 한 세대의 시간이 흘렀다. 1984년 한국여성학회 창립 세미나에 <불교의 여성관>이 발표된 것을 기점으로 여성불교학자들 사이에서 불교여성 연구가 촉발되었고, 이후 경전의 여성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불교사상문화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비판하면서 불교여성학은 그 학문적 지평을 조금씩 확대해 왔던 것이다.¹⁾

1)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혹은 서구 지역의 불교여성연구가 이 시기 이전에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1920-30년대 근대 여권의식의 고조로 불교여성연구가 적지 않게 시도되었던 것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현대 페미니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불교여성 연구는 서구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국내 초창기 불교여성 연구 및 2000년 전후 무렵까지 전개된 연구상황은 『불교여성학 논저목록집』 불교여성개발원, (2003) 참조.

그런데 이러한 불교여성학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페미니즘 활성화에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불교여성학의 전개에 있어서 실제 서구 페미니즘의 구체적인 이론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페미니즘은 주지하듯이 단일한 이론에 입각한 일사분란한 사상과 실천체계가 아니며, 오히려 너무나 다양하게 이론적으로 분화하고 동시에 실천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진화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교와 페미니즘’의 대화를 통해 불교여성학을 한 단계 발전시켜왔던 한 학자가 있었다. 바로 얼마 전 병고로 급작스럽게 타계한 순천대 교수 고(故) 안옥선이다.

안옥선은 초기불교 연구자 또는 불교윤리학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학문 속에는 페미니즘이 내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와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직후²⁾ 철학회로부터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을 때의 글도 불교와 페미니즘윤리의 비교연구였으며, 그녀가 생을 마치기 전 학문활동의 마지막 시기에 제출한 논문도 젠더에 관한 글이었다. 그녀의 페미니즘과 젠더 관련 글들은 모두 10여 편으로 불교학회뿐만 아니라 철학회나 여성학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불교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한데 묶여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런 연구 성과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글은 서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연구 리뷰라는 형식으로 안옥선의 ‘불교와 페미니즘’ 관련 일련의 연구물들의 내용과 그 성격을 분

2) 안옥선의 박사학위 논문은 「초기불교와 선진유교 윤리 연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학문활동을 하면서 발표한 논문주제가 불교의 페미니즘과의 비교연구였다는 점이 페미니즘에 대한 그녀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석한 것인데, 국내 불교여성학 연구사에 있어서 그녀의 연구가 갖는 의의를 이를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안옥선의 '불교와 페미니즘' 연구 리스트를 발표 연대순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자비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의 비교윤리학적 고찰」 『백련불교논집』 제7집 (1997)

「초기불교와 페미니즘 윤리에 나타난 자아의 특징」 『哲學』 Vol.53 No.1 (1997)

「초기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 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哲學研究』 Vol.68 (1998)

「초기불교윤리의 프라이버시 지양성과 공사구분 거부성」 『汎韓哲學』 Vol.19 (1999)

「"불교와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 왜 필요한가?」 『불교평론』 제4집 (2000), 『동서 비교문학저널』 Vol.6 (2002) 재수록

「불교의 성평등주의 : "성(별),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철학과 현실』 Vol.46 (2000)

「보살핌에 있어서 도덕의식의 타자화와 자기희생에 대한 불교윤리적 제안」 『한국여성철학』 Vol.1 (2001)

「A Critique of the Early Buddhist Text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AJWS)* (Asian Center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2002)

「불교(佛敎)와 젠더 ; 트랜스젠더와 불교」 『한국불교학』 제48집 (2007)

「A Feminist Choice between the Two Types of Buddhist Compass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AJWS)* Vol.14 No.1 (2008)

「트랜스젠더리즘과 불교의 "성(별)공성"」 『동서 비교문학저널』 Vol.20 (2009)

이와 같이 안옥선의 불교와 페미니즘 연구는 총 12년간 11편의 논문으

로 발표되었는데,³⁾ 이 일련의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불교윤리와 페미니즘의 관계 조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불교 텍스트 비평과 페미니즘’, 마지막으로 ‘불교의 성(별) 공성’을 주제로 한 글들로 분류된다. 이 분류에 따라 연구의 내용과 성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불교윤리와 페미니즘의 관계 조명

안옥선은 그녀의 전공이기도 한 불교윤리에 있어서 페미니즘과의 비교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현대 윤리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재해석하면서 이를 ‘자비의 윤리’로 명명하기도 했는데, 그녀는 이것을 페미니즘 내에서 가장 쟁점이 되어 왔던 ‘보살핌의 윤리’와 비교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녀는 우선 이 두 윤리가 갖는 유사성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 기술하였다.

자비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는 윤리의 요청 근거 내지는 이유로서 인간 존재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 윤리의 원천으로서 정서적 측면의 강조, 절대적 도덕 규칙이나 원리의 지양, 윤리의 필요성의 인식과 실천에 있어서 자율성의 전제, 자기희생의 지양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⁴⁾

3) 이 중 4편의 논문 「자비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의 비교윤리학적 고찰」; 「초기불교와 페미니즘 윤리에 나타난 자아의 특징」; 「초기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 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초기불교윤리의 프라이버시 지양성과 공사구분 거부성」; 「보살핌에 있어서 도덕의식의 타자화와 자기희생에 대한 불교윤리적 제안」은 단행본 『불교윤리의 현대적 이해』(불교시대사, 2002)에 수록되어 있다.

4) 「자비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의 비교윤리학적 고찰」 『백련불교논집』 제7집, (1997)

또한 불교와 페미니즘 윤리의 유사성은 윤리 주체인 '자아'의 특징에서도 확인된다고 제기하였다.⁵⁾ 그녀는 특히 초기불교로 한정하여 불교의 '자아'의 특징을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아설이 보여주는 실체아의 부정, 연기설로 설명되는 관계아, 욕구실현의 주체로서의 자아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은 그대로 페미니즘 윤리의 '자아'가 갖는 속성으로 설명되었다.

페미니즘 윤리는 데카르트와 칸트로 대표되는 이성 중심주의 철학이 전제하고 있는 실체적이고 초월적 자아를 거부하면서 이러한 성격을 담지하게 되었는데, 즉 불교윤리와 페미니즘은 맥락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윤리적 '자아'의 성격에 공통성이 발견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주장하는 불교윤리와 페미니즘의 유사성은 엄밀하게 보면 페미니즘 윤리에서 제기된 개념들이 불교에서 재발견되고 있는 방식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페미니즘 윤리가 불교의 현대적 해석에 강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불교를 페미니즘에 그대로 귀속시킨 것은 아니었다. 페미니즘 내에서 제기된 몇 가지 중요한 논쟁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교를 다시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옥선은 보살핌 윤리가 갖는 한계와 이에 대한 페미니즘 내의 논쟁을 '우려론'이라고 하는 다소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개하였는데, 그녀는 불교윤리의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입장을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5) 「초기불교와 페미니즘 윤리에 나타난 자아의 특징」 『哲學』 Vol.53 No.1, (1997)

불교윤리는 도덕의식의 타자화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율적 주체의식의 회복’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제안하고, 자기희생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리이타적 원리’를 제안한다.⁶⁾

안옥선은 스스로도 ‘원론적 답변’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페미니즘 내에서 보살핌의 윤리가 갖는 문제점—여기서는 도덕의식의 타자화와 자기희생문제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사상을 면밀하게 검토한 흔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초기불교 경전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자신의 이로움과 타인의 이로움 모두를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으뜸이며 최선, 최상, 최고, 극상이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불교윤리의 자리이타적 원리를 공고히 했다.

그리고 페미니즘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과제로서 공사(公私) 이분법의 극복문제 역시 불교의 자비의 윤리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녀의 설명을 들어보자.

윤리에 있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은 프라이버시를 전제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필자가 이해한 대로 불교윤리가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미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교윤리는 또한 공사영역의 구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략— 자비의 윤리는 ‘도덕의 영역에서의 감성의 배제’라는 전제뿐만 아니라 이 전제에 근거한 공사영역의 구분구도와 이 구분구도에 입각한 차별적 도덕원칙을 거부한다.⁷⁾

이 글 속에서 유독 ‘원칙적으로’ 또는 ‘보아야 한다’와 ‘거부한다’라는

6) 「보살핌에 있어서 도덕의식의 타자화와 자기희생에 대한 불교윤리적 제안」 『한국여성철학』 Vol.1 (2001) 한국여성철학회

7) 「초기불교윤리의 프라이버시 지양성과 공사구분 거부성」 『汎韓哲學』Vol.19 (1999)

표현이 눈에 띄는데, 여기서 우리는 안옥선의 윤리학에서 혹은 '불교와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관점에서 강한 원칙지향적 성격을 감지하게 된다. 불교를 통해 페미니즘 윤리의 이론적 결함을 보완하고,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불교가 재해석되는 것이 바로 그 원칙지향성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그녀가 불교와 페미니즘의 연결모색을 통해 지향하는 바는 불교의 원칙 확인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안옥선은 불교의 자비와 페미니즘의 연결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은 논문을 이후에 한 편 더 발표했다. 여기서는 불교의 자비를 두 가지 형태-즉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로 분류하면서 페미니즘과 연결될 수 있는 자비로는 초기불교의 그것이라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하기도 했다.⁸⁾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불교의 자비는 자리이타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했는데, “이에 반해 대승불교의 자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희생의 문제를 대승의 자비와 연결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던 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녀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불교의 자비 유형을 가치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즉 그녀는 초기불교의 자비가 더 우위에 있다고 표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페미니즘의 지향과 연결될 수 있는 불교의 자비를 검토하면서, 초기불교의 자비사상이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했던 것인데,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페미니즘의 관점에 의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면이 무척 흥미롭다고 하겠다.

8) “A Feminist Choice between the Two Types of Buddhist Compassion” 2008년 03월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AJWS) Vol,14 No,1, Ewha Womans University
 Press(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3. 불교 텍스트 비평과 페미니즘

안옥선이 불교경전의 여성관련 교설을 직접 비판한 논문은 「초기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 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⁹⁾이 유일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후에 약간 내용을 보강하여 영문으로 발표되기도 했는데,¹⁰⁾ 이 논문들을 발표할 무렵이 그녀가 불교사상과 문화의 성차별주의를 가장 활발하게 비판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안옥선 자신의 논문은 아니지만, 엘리슨 핀들리의 글을 번역 소개하면서는 “초기 팔리문헌에 나타난 여성과 아라한 문제(Women and the Arahant Issue in Early Pali Literature)”라는 원제목을 “왜 여성은 ‘아라한’이라 불리지 않았는가”로 변경하는 등¹¹⁾ 젠더관점의 비판적 태도가 강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안옥선은 불교의 여성차별 교설 중 가장 심한 것을 ‘여성성불 불가설’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녀의 강경한 입장은 ‘반불교성(Anti-Buddhist Nature)’이라는 용어에서 확인된다. 즉 팔리어 경장(經藏)의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교설은 ‘반불교성’, 그러니까 ‘불교라 할 수가 없다’고 판정하였던 것이다. 그녀가 사용한 ‘반불교성’이라는 표현도 독특하지만, 불설(佛說) 진위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가 일반적인 것에 반해, 그녀는 붓다의 입장을 추론하여 이것을 판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더욱 흥미롭다. 안옥선은 다음과 같은 7가지 근거로 여성성불 불가설의 소위 ‘반불교성’

9) 「초기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 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哲學研究』 Vol.68 (1998)

10) “A Critique of the Early Buddhist Text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AJWS)* (Asian Center Women's Studies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2002])

11) 엘리슨 핀들리 (Ellison Banks Findly) 「여성은 왜 아라한이라 불리지 않았는가」 안옥선 역 『불교평론』 5호 (2000)

을 논증했다.

- ① 붓다의 무아, 공, 연기, 중도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여성을 수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성차에 상관없이 인간 모두의 수행법 입을 밝힌 붓다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윤회하는 세계에 본래 남성 여성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 ④ 붓다가 인간 존재유형을 고려할 때 생물학적 성차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 ⑤ 수행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말의 영역에 위배되는 말이다.
- ⑥ 붓다는 비구니 승가에 성불의 목표를 부여하고 여성성불 불가설을 주장하는 모순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⑦ 테리가타의 여성아라한의 존재가 이 설을 정면에서 반박한다.

그녀는 우선 불교의 근본 교리를 근거로 그 모순성을 분석하였지만, 7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붓다의 기존 태도를 근거로 여기서 유추한 비판임을 볼 수 있다. 즉 그녀가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기본적으로 붓다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경전은 그 형성과정에서 남성중심적이고 출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페미니스트들의 기존 비판을 그녀 역시 수용하고 있다. 때문에, 그녀가 확고한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붓다의 입장 그것이었다.

하지만 경전 속에서 붓다의 입장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묻는다면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확고한 기준점을 상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기준을 근거로 여성성불 불가설을 '반불교성'이라고 판정한다. 한편, 이와 같이 불교의 가장 성차별적인 교설에 대한 그녀의 비판에 있어서 어쩐지 페미니즘은 아무런 역할을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이쯤에서 불교와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안옥선의 정리된 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000년도 『불교평론』 여름호는 <불교와 페미니즘> 특집호였는데, 안옥선은 이때 「“불교와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총론 성격의 글을 발표했다.¹²⁾ 여기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불교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붓다의 입장과 불교의 이념은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속에 드러난 불교의 현실은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불교가 갖는 원래의 친페미니즘성을 드러내고 현실 불교의 반페미니즘성을 드러냄으로써 원래의 불교이념을 실현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요청 때문에 ‘불교와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을 보면, 안옥선이 왜 여성성불 불가설을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에 의해서 비판하기보다, 붓다의 입장을 근거로 비판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페미니즘의 비판은 불교의 원래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지 못한, 현실 제도 속의 불교에 적용되는 것이라 하였고, 불교의 이념과 붓다의 입장은 페미니즘의 비판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한다고 분리하였다. 그런데 불교의 이념과 붓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인 경전에 여성차별 교설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안옥선은 경전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불교 텍스트 비평은 붓다의 본래 입장에 근거하여 수행될 수 있

12) 「“불교와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 왜 필요한가?」 『불교평론』 통권 제3호 (2000), 『동서 비교 문학저널』 Vol.6 (2002) 재수록. 불교평론의 다른 발표들의 제목에 ‘불교페미니즘’이 등장한 것에 반해, 안옥선에게는 ‘불교와 페미니즘’의 명칭이 고수되었다. 뒤에서 더 언급하겠지만 안옥선의 불교학에 있어서 페미니즘은 ‘불교페미니즘’을 지향하기보다 ‘불교와 페미니즘’의 형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개별성을 담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고 보았던 것 같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불교가 그리고 붓다의 입장이 '원래' 친페미니즘적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페미니즘을 통해 불교를 변형하려는 '불교페미니즘'을 지향한 것이라기보다, 페미니즘을 수단으로 하여 '원래'의 불교이념 실현을 기대하고, 불교의 그 '원래'성을 통해 페미니즘을 보완하고자 하는 상호 협조관계의 '불교와 페미니즘'을 상징했다고 할 수 있다.¹³⁾

4. 불교의 성(별) 공성

마지막으로 성(별) 공성을 주제로 한 연구물들이 있는데, 안옥선은 성(별) 공성을 불교의 성평등주의로 제출하였고 이후 이것을 다시 트랜스젠더리즘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별)에서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섹스의 성뿐만 아니라 젠더의 성별 공성도 포함하기 위한 장치로 추측된다. 우선 안옥선은 성평등주의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성(별),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의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갖는 해방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별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고정된 절대적 성(별)에 대한 거부이며, ‘없는 것도 아니다’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별)에 대한 긍정이다.¹⁴⁾

그리고 그녀는 이런 해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별이 개성과 상황에

13) 이런 점이 본 글의 제목을 <안옥선의 '불교와 페미니즘' 연구 리뷰>라고 명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14) 「불교의 성평등주의 : "성(별),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철학과 현실』 Vol.46 철학문화연구소(2000)

따라 선택될 수 있는 것, 그리하여 불교는 성별에 관하여 자아의 주체적 선택을 허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어찌보면 다소 파격적이고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성(별)공성은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 해방사상이자 성평등주의의 원천임에는 분명한 것이다. 안옥선은 성별의 선택권과 관련하여 양성성을 이상적 인간성의 요건으로 제안하면서 지혜로움과 자비로움의 검비를 그 내용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성(별) 공성으로 인한 주체적 성별선택권이라는 그녀의 독창적인 해석은 트랜스젠더리즘과의 연결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또 다른 논문에서는 트랜스젠더와 불교의 관계를 조명하였는데,¹⁵⁾ 경전적 근거를 밝히는 의의가 돋보이기도 했다. 즉, 초기경전에 나타난 트랜스젠더 사례를 발굴하여 붓다가 이를 수용한 내용을 소개했으며, 대승경전에서는 ‘변성’을 재해석하면서 이것의 가능근거이자 한편으로 변성의 핵심메시지가 성(별)공성이라는 점을 도출하였다.¹⁶⁾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논문, 「트랜스젠더리즘과 불교의 “성(별)공성”」. 여기서는 트랜스젠더리즘이 결정론적 성별 관념과 여기서 파생된 문화적 신념에 도전하는 것과 같이, 불교의 성별공성도 이런 관념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리즘과 연결된다고 분석하였다.¹⁷⁾ 불교와 페미니즘의 유사성이 연구되었던 맥락이 트랜스젠더리즘 연구에서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옥선은 불교와 트랜스젠더리즘의 유사성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를, “성적 소수자 억압의 근거인 결정론적 성(별)관

15) 「불교(佛敎)와 젠더 ; 트랜스젠더와 불교」 『한국불교학』 제48집 (2007)

16) 이 논문은 불교학계에 발표한 것이라서 페미니즘 내에서 제기된 트랜스젠더의 개념과 그 정지학이 갖는 함의를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마지막 장에는 불교의 성전환수술 허용여부를 검토하는데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그녀에 의하면 초기 불교에 있어서는 허용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류적 태도를 보였고, 대승불교 변성의 입장에 의하면 수술이 최소한 절대 금지되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17) 「트랜스젠더리즘과 불교의 “성(별)공성”」 『동서 비교문학저널』 Vol.20 (2009)

념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또한 “결정론적 이분법에 기초한 성정체성과 성별규범에서 탈피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갖는 궁극적 함의는 이 글 결론부분의 다음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남녀범주 자체의) 분열 전복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남녀 모든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한 것이다. -중략-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은 자아의 최고이상인 열반적 자아가 되는 것인데, 이는 남녀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안옥선이 생각하는 불교와 페미니즘의 일치된 지향성이 아니었을까. 그 지향점을 위해 결정론적 성별 규범 탈피가 근원적으로 요구되며, 불교는 이와 같은 현대 트랜스젠더리즘의 정치학과 연대할 수 있는 원천으로 성(별)공성 사상을 제공한다는 것이 안옥선의 마지막 논문 결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5. 안옥선의 '불교와 페미니즘' 연구의 성격과 의의

안옥선의 글은 생전 그녀의 말씨와 모습처럼 너무나 단정하다. 모범답안지 같다. 그리고 그녀가 바라보는 불교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시선은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불교와 페미니즘의 대화가 시작된 길에서 어쩌면 분명한 이상향에 대한 신념 없이는 어려웠던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마치 고전물리학에서 공고한 좌표축을 상정하고 그 위치와 관계를 확

인하는 것처럼, 그녀의 이상적인 시선과 그 작업은 필연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녀에게 있어서 확고한 중심축은 ‘붓다의 본래 입장’이었다. 그녀는 이것은 그 자체가 친페미니즘적인 것이며 나아가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신념이 그녀로 하여금 불교와 페미니즘이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믿었던 그 확고한 중심축이 과연 현실적으로 검증가능한 것인가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현대물리학의 그 어렵고 복잡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세계로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안옥선은 불교와 페미니즘의 탐색기에 그 관계를 가장 성실하게 연구한 학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페미니즘과의 만남을 통해 불교의 원형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의 열망과는 달리 이 만남은 많은 변형을 이끌어내고 만다. 그러나 불교 페미니즘 연구가 열여가는 새로운 장에 안옥선의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그녀의 세세한 안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그녀의 연구가 다시 주목되기를 희망한다.

*

안옥선 선생님에게 마음의 빛이 있어 늘 편치 않았다. 필자가 처음으로 불교여성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선생님은 논평자로 나오셔서 분에 넘치는 격려와 지지를 보여주셨는데, 이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아직까지 이 분야 연구자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후에도 종종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었던 선생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리만 들던 차

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거리고 있다가 부족한 글이나마 선생님의 연구를 정리하자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마음의 빚은 조금 갚은 것 같지만 좁은 소견에 이 글이 선생님께 오히려 누가 되는게 아닌가 다시 두렵기도 하다. 한평생 쉽없이 달려오시느라 고단한 삶을 그만 잊으시고 부디 편안히 잠드시길... 그리고 선생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다시 오시길 기원한다.